

한국 바둑계 '여성파워' 거세다

‘여자 이창호’ 조혜연 7단·‘철녀’ 루이 나이웨이 9단 등 남녀 성대결서 각각 8승 5패·10승 8패 좋은 성적 올려

여성들이 남성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골프가 가장 비근하다. 지난 6일에는 미셀위 가 남자 프로골프 최대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본선 도전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스포츠에서는 이처럼 중추 성대결이 이뤄지지만 엄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싸우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몸을 쓰지 않는 바둑은 가능하다. 같은 날 골프의 성대결에 비견될 만한 일대 사건이 바둑계에도 있었다. 제3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8강전에서 ‘여자 이창호’ 조혜연 7단과 ‘진짜’ 이창호 9단이 맞붙었다.

아쉽게도 조 7단이 193수 만에 백 불계패했지만 바둑에서만큼은 여류기사들이 남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올 6월 현재까지 성적만을 놓고 보면 ‘우세’다.

한국 여류 바둑의 대표 기사인 루이 나이웨이 9단과 조혜연 7단 만을 놓고 따진다면 그렇다. 현재 조혜연은 13명의 남성 기사와 겨뤘 8승 5

패의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철녀’ 루이 나이웨이 9단은 많이 이기고 많이 졌다. 그래도 상대 전적에선 10승 8패로 밀리지 않는다.

남성 고수들이 우글거리는 ‘강호’에서 ‘여류 검객’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대국의 질적인 면에선 다소 순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창호,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등 정상급 기사들과의 대국에선 전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루이 나이웨이 9단은 지난 3월 제2회 불가정 보배 대국에서 165수 만에 이창호 9단에 패한 것을 비롯 최근 한국바둑리그까지 이 9단에게 두 번 연거푸 불을 먹었다.

조혜연 9단은 이번에 이창호 9단에 패한 것을 비롯 지난해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본선 준결승에서 박영훈 9단에 200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최철한 9단과의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예선전에서도 접전 끝에 백 4집반으로 고배를 마셨다.



지난 6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8강전에서 이창호 9단과 조혜연 7단이 대국하고 있다. 이 9단이 19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4강에 올랐다. <한국기원 제공>

이세돌 9단과의 역대 전적에선 1승 4패로 열세다.

이처럼 정상급 남자선수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류 바둑은 여성 골퍼가 US오픈 정상을 밟은 것과 다를 없는 ‘금지탕’을 오래전에 세운 바 있다.

루이 9단은 지난 2000년 43기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에서 이창호 9단을 물리친 여세를 몰아 도전기에서도 조혜연 9단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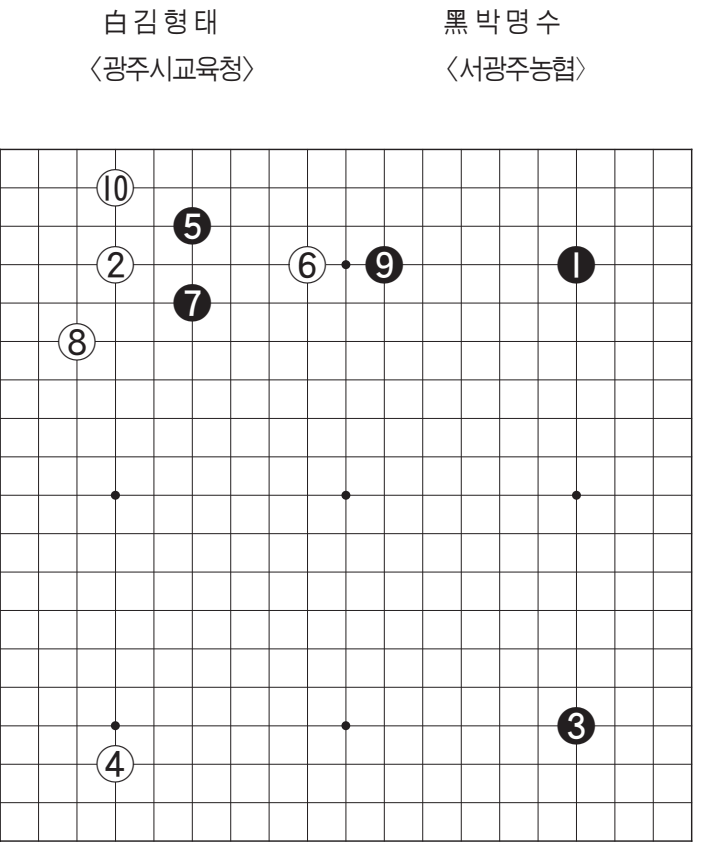
루이 9단은 2004년에는 9단만 참가하는 맥심배 입선최강전에서 유창혁 9단을 물리치고 또 다시 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통파’ vs ‘잡초류’

2회전 제 1보(1~10)



이번엔 서광주농협 박명수 5단과 광주시교육청 김형태 5단의 대국이 다. 지난해 14회 대회에서 종합무진 활약을 보이며 직강바둑대회를 휩쓸었던 박명수 5단과 김형태 5단이 2회전에서 때 이르게 맞붙은 것이다.

농협의 영원한 강자로 일찍부터 명성을 날려온 박명수 5단은 작년 이 대회에서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하며 기업을 토했다. 영원한 우승후보인 김형태 5단(전남고)도 지난해 맹활약하며 팀이 그랑프리인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관록을 자랑하는 우승후보들이 이렇게 일찍 겨루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자연히 관련자들의

관심이 대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기풍을 따진다면 박 5단은 매우 실전적으로 소위 잡초류에 속하며 대단히 질긴 바둑을 두고 있다. 반면 김 5단은 이론에 밝은 정통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국이 시작됐다. 1부터 4까지의 포석은 평범하다. 흑이 좌상변 5로 걸쳐가자 백은 5로 한 칸 높은 협공에 나섰다.

흑도 7로 뚫 뒤 백이 8로 벌리자 9로 협공한다. 이 수에서 실전적인 박 5단의 기질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다.

백은 상변 한 점을 움직이는 대신 10로 뛰어 좌상귀를 지킨다. 흑의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北 ‘바둑신동’ 조대원 세계대회 3위

세계야마시수권, 7승1패 기록



서 일본의 히라오카 사토시(35)가 중국의 당위성(13)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조대원은 파국의 4연승을 거둔 뒤 5회전에서 일본의 히라오카를 제압했다 6회전에서 중국의 당위성에게 석패하는 바람에 우승을 놓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1~4위 모두 7승1패를 기록했으나 포인트제로 순위가 결정됐다.

세계야마시수권 대회(18)이 세계야마추어바둑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빼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제일분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조대원이 지난해 나고야(名古屋) 대회 준우승에 이어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시 하우스텐보스에서 최근 개최된 금년 대회에서 3위(7승1패)에 올랐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68개 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

/윤영기기자 penfoot@

한·일 민간바둑교류 13년 ‘화제’

대구바둑협회-후쿠오카 기우회

한·일간 바둑 교류전이 13번째 열리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구바둑협회 회원들과 후쿠오카 기우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대구-후쿠오카 바둑교류전을 가졌다. 1, 2차전에 걸쳐 맞대결을 펼친 이번 교류전에서는 후쿠오카 기우회가 17-15로 승리, 2년 연속 대구에 앞섰다.

대구-후쿠오카 교류전은 민간 차원의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국제바둑교류전으로 지난 1993년 대구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대구와 후쿠

오카를 오가며 13번째 계속되고 있다.

교류전의 산파역과 함께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오고 있는 이재운 대한바둑협회 회장은 대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을 ‘바둑’ 자체에 돌리고 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손으로 나누는 대화’인 바둑이 있었기에 13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운 회장은 “정부, 기업과 달리 민간 차원의 외교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후쿠오카 교류전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작게는 양 도시의 가고 역할을 나아가서는 바둑계와 국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화안내 Happy Time

메가박스 구원단약국사거리

엔터시네마

엔터시네마

다빈치 코드

콜롬버스 시네마

에이플러스 부동산건설링

아주 특별한 제안

국민지도

중앙국토개발건설링

GS부동산건설링

대지공인중개사